

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

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

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| Tel (661) 871-9190 | 1305 Water St., Bakersfield, CA 93305
Fax (661) 873-7286 | 홈페이지 www.sanclementemission.org | 통권 제 26 권 99 호



주일 미사: 오전 8 시 (한국어, 영어), 오전 9 시 30 분(영어), 오전 11 시(스페인어)
토요일 미사: 오후 6 시(스페인어)
평일미사: 월, 화, 목요일에는 오후 6 시.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
고백성사: 월, 화, 목요일 평일미사 전 (오후 5:30 ~ 5:50)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.
성체조배: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
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: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
성당사무실 시간: 화요일 ~ 금요일(9:30AM ~ 6:00PM)

미 사 성 가	입당 (92)	봉헌 (221)	성체 (165)	파견 (91)
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

제1독서 | 2사무 7,1-5,8ㄷ-12,14ㄱ,16
화답송 | 시편 89(88),2-3,4-5,27과 29(◎ 2ㄱ 참조)
 ◎ 주님,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.
 ○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.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. 제가 아뢰나이다. “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, 진실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.”◎
 ○ 나는 내가 뽑은 이와 계약을 맺고,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노라. “영원토록 네 후손을 굳건히 하고, 대대로 이어 갈 네 왕좌를 세우노라.” ◎
 ○ 그는 나를 부르리라. “당신은 저의 아버지, 저의 하느님, 제 구원의 바위.”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리니, 그와 맺은 내 계약 변함이 없으리라. ◎
제2독서 | 로마 16,25-27
복음환호송 | 루카 1,38
 ◎ 알렐루야.
 ○ 보소서,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.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 ◎
복음 | 루카 1,26-38

성소를 위한 기도

- 좋으신 목자 예수님,
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
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.
- 비오니, 오늘도
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
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,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.
-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,
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
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
-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
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
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.
- 주님,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
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.
-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
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.
- ◎ 아멘.

◆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◆

날짜	미사해설	독서	복사
12/10	이 그레이스	이 바오로 / 김 유스티나	박 다니엘
12/17	이 그레이스	이 요한 / 김 헬레나	박 다니엘
12/24	이 마틸다	이 바오로 / 김 유스티나	박 다니엘
12/31	이 마틸다	이 요한 / 김 헬레나	박 다니엘

영어독서:

우리의 정성

지난 주일	봉헌금	2 차 봉헌	교무금
	\$177	\$87	\$420

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

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, 오후: 3 시 입니다.

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12/16	이 안드레아/ 이 안젤라	1/20	김 요아킴/ 고 안나
12/23	이 요한/ 이 마틸다	1/27	김 유스티노/김유스티나
12/30	유 요한/ 유 마리아	2/3	이 바오로/ 이 빅토리아
1/6	홍 마르코/ 홍 아네스	2/10	장 글라라/ 이 데레사
1/13	이 그레이스/ 김 마르타	2/17	김 헬레나/ 박 세라피나

'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' 를 부탁드립니다.

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, 자매님들 그리고,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.

말씀의 이삭

성탄 내 마음을 밝고 오는 그대

이희윤 마리 스텔라 -착한목자수녀회-

3년 동안 한국을 잠시 떠나있던 수녀님이 돌아오셨습니다. 수녀님은 오랜만에 거닐어보는 수녀원 앞마당에서 한 나무를 보고는 “어, 너 3년 전 그대로구나!”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였습니다. 그랬더니 그 나무가 “아니야, 나 새것이야!”라고 하였습니다.

수녀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수녀들은 깔깔거리며 웃었지만, 그 짧은 대화는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. 내가 10년 전, 20년 전과는 다른 “새것”이고 다른 사람들도 “새것” 이라는 것을, 우리는 매일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.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만나는 사람을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사람으로 규정해버리고 관계에 빗장을 걸어버리곤 합니다.

해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때마다 새로 오시는 예수님도 우리 안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. 그래서 매년 맞이하는 성탄이 늘 새로움이면서 때로는 잔잔하게, 때로는 충만하게 맞이하게 됩니다.

성탄에 대한 저의 첫 기억은 일고여덟 살 때였습니다. 당시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는 아이들 정서에 좋을 거라는 이유로 저와 언니를 동네에 있는 예배당에 보내셨습니다. 그때 저는 성모님으로 분장하여 성탄극을 연습했는데 정작 성탄 전야 연극 때에는 부모님이 모두 그 예배당 신자였던 다른 친구에게 그 역할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. 어린 마음에도 저는 그 친구를 부러워하면서 바라보아야 했고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쓸쓸하게 맞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

그 후에 제가 세례를 받고 새롭게 태어난 날은 스물한

공동체 소식

성체조배 안내: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.

인공동체 임원회의: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후 7 시

오는 임원회의는 1/14/18 오후 7 시에 있습니다.

임원께서는 참고하시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.

공동체 기도 성가 모임: 매주 화요일 오후 8:00

문의: 박 바오로 (661-342-7130)

모임 장소: 10907 Prairie Stone Pl, Bakersfield. CA 93311

대림피정 과 판공성사 12 월 24 일(오늘)

가톨릭 신문사의 윤지중(미카엘) 신부님께서 주일미사를 하시고 아침식사 후

10~12시 특강, 12시 부터 고백성사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. 주변분들께 알리시어 많은 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바랍니다.

성탄 전야 미사

12 월 24 일(내일) 저녁 10 시 성탄 전야 미사가 있습니다.

성탄 미사

12 월 25 일 아침 9 시 30 분 성탄 미사가 있습니다.

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(매년 1 월 1 일 9:30 미사)

1 월 1 일은 천주교 신자가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축일 입니다.

부고(訃告)안내 - 이 율리안나 자매님

이 율리안나 자매님이 12 월 8 일 돌아가셨습니다.

우리 공동체의 식구였던 자매님이 하느님 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.

살이었던 성탄 전야였습니다. 세례식에 한복을 입으면 좋겠다는, 교리를 가르쳐주신 수녀님의 말씀에 언니의 하얀 치마저고리를 빌려 입었던 저는 마치 하얀 천사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. 어린 시절 쓸쓸한 성탄의 기억이 단번에 상쾌되고 황홀한 기쁨으로 첫영성체를 하며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였습니다.

한 참 힘들고 어려운 여러 일들로 어렵사리 한 해를 넘기던 몇 년 전 성탄 전야의 일입니다. 미사 시간 내내 제게 들려오던 발자국 소리가 있었습니다. 그 소리가 얼마나 선명하고 또렷했는지 그 감동은 지금 까지도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. 그 밤에 저는 그 기쁨을 한편의 시로 만들어 아기 예수님께 바쳤습니다.

저벅 저벅 저벅 / 내 마음을 밝고 오는 그대 / 저벅 저벅 저벅 / 내 마음의 뾰족한 자갈들이 / 고운 흙이 되도록 / 그대는 맨발로 밟고 있다. / 마음 안의 잔재들은 / 형체도 없이 무너진다. / 맑아진 내 마음을 구유삼아 / 그대는 내 마음 밭에 고요히 눕는다. / 그렇게 그대가 태어난다.

그리고 이번 성탄은 또 어떤 새로움으로 탄생하실지 다시 귀 기울이게 됩니다.

예수님은 어둠속에서
빛을 해방시키십니다.

-바오로 6세 교황-